

상고중국어 양상부사 연구*

윤 순 일**

<목 차>

1. 서론
2.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
3.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의 특징
 - 3.1 판단양상
 - 3.2 인식양상
 - 3.3 도의양상
 - 3.4 동력양상
 - 3.5 평가양상
4. 결론

1. 서론

양상(modality)은 일반적으로 '命題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정의된다. 전통적으로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의지, 바람, 의무 등의 개념들이 양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문장 안에서 양상이 실현되는 방식으로는 언어에 따라 조동사, 부사, 동사, 형용사, 명사, 부가어, 첨사, 문형, 격 등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더-', '-겠-'과 같이 형태적 방식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어쩌면', '분명히'와 같은 어휘적 방식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영어의 경우 'can',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1024928).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chunyi@daum.net)

‘must’ 등의 양상조동사, ‘have to’, ‘be able to’, ‘be bound to’ 등의 준양상조동사 그리고 ‘perhaps’, ‘certainly’ 등의 양상부사가 주요한 실현 방식이다. 중국어에서는 ‘能’, ‘可以’와 같은 조동사와 ‘一定’, ‘必須’, ‘千萬’ 등의 어기부사, 그리고 ‘吧’, ‘呢’, ‘啊’와 같은 어기사가 대표적인 양상의 실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 양상의 의미체계에 대하여 최근 학계는 彭利貞(2007), 朱冠明(2008), 李明(2001) 등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양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조동사라는 품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양상의 실현방식인 양상부사에 대한 연구는 대개 부사의 하위분류로서 분절적으로 언급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상부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비교적 통일된 의미체계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고중국어 시기 일부 양상개념들은 주로 부사에 의해서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양상의 관점에서 체계를 수립하고 그 용례를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아래에서 공식적 관점에서 상고중국어 시기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정리하고 이들이 출현한 문장을 분석하여 개별 양상부사의 의미상·통사상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양상(modality)’은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情態’로 번역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서법(mood)’이 있다. 대체로 영문법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중국어는 ‘語氣’로 번역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동사가 나타내는 [가능], [의무], [허가] 등의 의미들을 모두 ‘情態’로 간주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의 명칭으로는 ‘語氣副詞’와 ‘情態副詞’가 모두 통용되고 있으며, 이 둘에 대한 정의와 범주 설정도 학자마다 매우 상이한 편이다.

이에 졸고(2017)에서는 해당 범주의 명칭으로 우리말로는 ‘양상부사’를 중국어로는 ‘情態副詞’를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그 정의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을 나타내는 부사’로 제시하였으며, 史金生(2003), 郭新雨(2003), 謝佳玲(2002, 2006), 張誼生(2014)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표1>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판단(判斷)	인식(認識)	도의(道義)	동력(動力)	평가(評價)
[확인] (確實、其實)	[가능] (也許、几乎)	[허가] (不妨、無妨)	[의지] (寧可、索性)	[기대] (果然、無怪)
[강조] (才、恰恰)	[필연] (必然、一定)	[필요] (務必、千萬)		[반기대] (竟然、居然)
				[요행] (幸虧、好在)
				[애석] (可惜、偏偏)

<표1> 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

<표1>의 의미체계는 조동사 관련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평가’류와 ‘판단’류를 상위범주로 독립시키고 ‘도의’류와 ‘인식’류 하위의 정도성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 밖에도 주로 반어문에 쓰이는 ‘難道’, ‘到底’ 등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별개의 상위범주인 의문부사로 분류하고, 감탄문에서 ‘太’, ‘多’ 등 강조의 역할을 하는 부사들을 정도부사로 귀속시키고, 상고중국어에서 자주 출현하는 ‘惠’, ‘幸’, ‘敬’, ‘謹’ 등 ‘겸양·존경(謙敬)’류 부사들을 상황방식(情狀方式)부사로 각각 귀속하여 배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전통적인 어기부사 의미체계와의 차별성이 있다.

<표1>의 체계에 따라 상고중국어 문헌에 출현하는 양상부사들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고중국어 조동사에 비해 인식양상에 해당되는 구성원 수가 많고, 조동사의 양상체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단류와 평가류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¹⁾

판단(判斷)	確認	信, 誠, 固 ₁ , 實, 果, 眞, 審, 良, 允, 慎, 亶, 展, 謹, 洵
	強調	方, 正, 適, 乃 ₁ , 卽
인식(認識)	可能	其 ₁ , 將 ₁ , 且 ₁ , 殆, 庶 ₁ , 庶幾 ₁ , 意, 意者, 或者, 其諸, 蓋
	必然	必 ₁ , 固 ₂ , 斷 ₁ , 決 ₁
도의(道義)	必要	必 ₂
동력(動力)	意志	寧 ₁ , 必 ₃ , 斷 ₂ , 決 ₂ , 其 ₂ , 將 ₂ , 且 ₂
평가(評價)	反預期	曾, 僭, 寧 ₂ , 一, 乃 ₂
	預期	
	倥倥	幸, 賴
	惋惜	

<표2>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

아래의 장절에서는 위의 <표2>의 기준에 따라 상고중국어 시기 문헌을 대상으로 양상부사의 용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구성원들의 의미상·통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²⁾

3.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의 특징

3.1 판단양상

판단양상은 기정사실로 간주되는 명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화자가 취하

1) <표2>는 졸고(2017)를 수정한 것이다. 졸고(2017)에서 ‘尙’, ‘其’, ‘式’, ‘苟’에 의해 표현되던 [명령], [희망] 등의 의미유형을 van der Auwera et al.(1998)에 견해에 따라 양상 체계에서 배제하였다. 이들은 본래 Bybee et al.(1994)에 의해 화자지향양상으로 분류된 개념들인데, van der Auwera et al.(1998)은 언표내적(illocutionary)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서 이들을 배제하였다. 다만 조동사나 양상부사와 같은 양상표현으로의 연원이거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양상(premodal), 후양상(postmodal)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 밖의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능]류에서 ‘得無’, ‘無乃’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 구로 간주하여 양상부사 범주에서 배제하였으며, [필요]의 ‘務’는 ‘힘쓰다’ 의미의 동사로, [기대]의 ‘果’는 ‘실로’ 의미의 [확인]류 양상부사로 처리하였다.

2) 본고가 선택한 문헌자료는 《尚書》, 《詩經》, 《左傳》, 《論語》, 《孟子》, 《韓非子》, 《呂氏春秋》, 《戰國策》, 《史記·列傳》, 《說苑》 등 상고중국어 시기 10종 문헌이다.

는 태도나 관점을 말한다. 화자는 명제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의 양상부사를 쓰면 결과적으로 강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판단양상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인식양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가상세계에 대한 인식적 판단이 아닌 이미 정해진 사태에 대한 진실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식양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판단양상은 판단의 관점을 기준으로 [확인]과 [강조]로 다시 구분된다.

3.1.1 확인류

[확인]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현대중국어에서 [확인]을 나타내는 양상부사로는 ‘確實’, ‘其實’ 등이 있다. 상고중국어의 양상부사 가운데 [확인]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信’, ‘誠’, ‘固₂’, ‘實’, ‘果’, ‘眞’, ‘審’, ‘良’, ‘允’, ‘慎’, ‘亶’, ‘展’, ‘謹’, ‘洵’ 등이 있다.³⁾

(1)~(3)과 같이 이들은 모두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의 어떤 사태에 대하여 화자가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에서와 같이 가정문에 쓰인 경우에도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상황의 진실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가정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한 인정을 가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固’는 어휘적 기원 의미와 관련하여 (5)와 같이 명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명제에 내재하는 근원적 속성을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확인]류 부사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은 주로 평서문에 쓰이지만 (6)에서와 같이 의문문에서도 자주 출현한다.

[확인]류 양상부사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固’와 ‘允’와 같은 경우 (5)와 같이 주어 앞에 출현하여 ‘Adv+NP+VP’ 구조를 구성하는 용례가 일부 보인다.

www.kci.go.kr

3) 편복의 제한으로 제시된 개별 부사에 상응하는 예문을 모두 열거하지 못하였다. 이하 동일.

- (1) 暫信美矣, 抑子南, 夫也.(《左傳·昭公元年》)
 자식은 진실로 용모가 뛰어나다. 자남은 장부이다.
- (2) 臣入竟, 聞楚之俗, 不蔽人之善, 不言人之惡, 誠有之乎?(《戰國策·楚策》)
 신이 국경을 들어서며 초(楚)의 풍속을 들었습니다. 남의 선행은 숨기지 않고 남의 악행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진실로 그러합니까?
- (3) 今君內實有四姬焉, 無乃是也乎!(《左傳·昭公元年》)
 지금 당신 임금께서는 안에 실로 네 명의 희(姬)씨 성을 가진 여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것(병환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 (4) 小人實不才, 若果行此, 其鄭國實賴之, 豈唯二三臣?(《左傳·壤公三十一年》)
 소인이 실로 재주가 없사오니 진실로 이를 행하기만 하면, 정나라가 그에 힘을 입음이 어찌 다만 두세 신하뿐이겠습니까?"
- (5) 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論語·壤公三十一年》)
 선생님께서는 진실로 하늘이 성인이 되도록 두신 것 같습니다. 또한 재능도 많으십니다.
- (6) 荊宣王問群臣曰: “吾聞北方之畏昭奚恤, 果誠何如?”.(《戰國策·楚策》)
 형선왕(荊宣王)이 군신들에게 물어 말하였다. “나는 북방 사람들이 소혜홀(昭奚恤)를 두려워한다고 들었다. 과연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느냐?”

[확인]류 양상부사 가운데 일부는 아래와 같이 또 다른 양상의 실현방식이
 라 할 수 있는 조동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信’은 ‘能’, ‘足’ 등과 공기할 수
 있고, ‘誠’은 ‘欲’, ‘能’, ‘得’, ‘足’, ‘可’ 등과 공기할 수 있으며, ‘果’는 ‘可’, ‘可以’,
 ‘得’, ‘足以’ 등과 공기할 수 있다. ‘固’와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의 종류가 가장
 많은데, ‘欲’, ‘能’, ‘得’, ‘足’, ‘足以’, ‘可’, ‘可以’ 등과 모두 공기할 수 있다. ‘實’은
 ‘欲’과 공기할 수 있다. 이상의 공기 상황은 아래의 <표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7) 信能行此五者, 可以全身.(《孟子·公孫丑上》)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 (8) 忠臣誠能然後敢受職.(《荀子·儒效》)
 충성스러운 신하는 진실로 능력이 있어야만 감히 내리는 직위를 받는다.

- (9) 彼誠可羞稱也。(《荀子·仲尼》)
저들(오패)은 진실로 일컫기 부끄러운 자들이다
- (10) 睹小節固足以知大體矣。(《說苑·尊賢》)
작은 부분을 보고도 실로 큰 요체를 알 수가 있다.
- (11) 君實欲天下之治而惡其亂也, 當爲宮室不可不節。(《墨子·辭過》)
진실로 임금의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혼란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궁실을 짓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信	能, 足
誠	欲, 能, 得, 足, 可
果	可, 可以, 得, 足以
固	欲, 能, 得, 足, 足以, 可, 可以
實	欲
眞	可, 可以
審, 良, 允, 慎, 亶, 展, 諶, 洵	없음

<표3> [확인]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상술한 바와 같이 [확인]류 양상부사들은 매우 다양한 조동사들과 공기하여 조동사를 포함한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함께 출현하는 조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유형은 ‘能’의 [능력], ‘可’, ‘可以’, ‘得’의 [조건], ‘欲’의 [의지], ‘足’, ‘足以’의 [가치] 등과 같이 모두 동력양상으로 제한되며, 인식양상이나 도의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공기하는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확인]류 양상표현들은 동력류 양상표현들보다 앞쪽에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후술할 인식류 양상부사와의 연용에 있어서는 ‘其信’, ‘其果’와 ‘果且’, ‘固必’, ‘固將’의 어순이 모두 발견되는 것으로부터 확인류와 인식류 사이에는 어순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1.2 강조류

[강조]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는 주로 판단문에 쓰인다. 판단문은 대개 주어와 술어 사이에 동등함이나 속성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부사는

문장에 쓰여 주어와 모종의 조건에 부합하여 동등함이나 어떠한 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인을 나타낸다. 현대중국어의 ‘就(是)’, ‘正(是)’ 등의 부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고중국어에서 [강조]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로는 ‘方’, ‘正’, ‘適’, ‘乃’, ‘卽’ 등이 있다. 이들은 상고중국어의 판단문의 술어 앞에 쓰여 명제의 진실성 대해 화자가 보이는 긍정적 태도나 관점을 나타낸다. [강조]류 양상부사는 판단문의 술어에 해당되는 명사성 성분의 앞에 출현하며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이들이 출현한 문장의 끝에는 (12)~(16)와 같이 ‘판단’ 또는 ‘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기사 ‘也’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 (12) 尹文曰：“竊觀下吏之治齊也，方若此也。”(《呂氏春秋·正名》)
윤문(尹文)이 말하였다. “남몰래 살펴건대 하급 관리가 제(齊)를 다스리는 것을 살펴니 바로 이와 같습니다.”
- (13) 處虢之勢正是也。(《韓非子·十過》)
우(虞)와 곽(虢)의 형세가 이와 같습니다.
- (14) 孔子曰：“審吾所以適人，適人之所以來我也。”(《荀子·王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남에게 가는 이유가 바로 남이 나에게 오는 이유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 (15) 今王中道而信韓魏之善王也，此正吳之信越也。(《史記·春申君列傳》)
지금 왕께서는 중도에 한(韓)과 위(韓)가 왕과 친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오나라가 월나라를 믿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 (16) 秦以趙攻，與之齊伐趙，其實同理，必不處矣。故用祝弗，卽天下之理也。(《戰國策·東周策》)
진(秦)이 조(趙)를 이용해 제(齊)를 공격하는 것이나 제(齊)를 부추겨 조(趙)를 공격하는 것이나 사실 모두 같은 이치입니다. 제(齊)는 필시 편안하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불’을 등용하는 것은 곧 천하의 이치인 것입니다.

상고중국어 판단문은 본래 조동사가 출현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강조]류 양상부사와 조동사가 공기하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方, 正, 適, 乃, 即	없음

<표4> [필연]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3.2 인식양상

인식양상은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 보이는 판단이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화자가 판단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판단양상과 유사하다. 하지만 화자가 명제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가능세계(possible world)에 있어서 명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앞의 판단양상과 확연히 구분된다. 인식양상은 화자가 갖는 명제에 대한 확신성 정도에 따라 다시 [필연]류와 [가능]류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경우 인식양상은 ‘應該’, ‘可以’, ‘會’ 등 매우 다양한 조동사에 의해 실현된다. 하지만 상고중국어의 조동사가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용례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 반면 상고중국어에는 인식양상을 나타내는 매우 다양한 양상부사들이 존재한다.

3.2.1 가능류

[가능]은 현대중국어의 ‘大概’, ‘也許’, ‘可能’, ‘會’ 등이 나타내는 의미와 같이 인식양상 가운데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확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이다. 상고중국어 양상부사 가운데 [가능]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其’, ‘將’, ‘且’, ‘殆’, ‘庶’, ‘庶幾’, ‘意’, ‘意者’, ‘或者’, ‘其諸’, ‘蓋’ 등이 있다. 대체로 ‘其’, ‘將’, ‘且’, ‘殆’, ‘庶’, ‘庶幾’는 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며, ‘意’, ‘意者’, ‘或者’, ‘其諸’, ‘蓋’은 주로 현재나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17) 今相秦, 必先齊而後秦, 秦其危矣. (《史記·孟嘗君列傳》)

지금 그를 진나라 제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제나라의 이익을 먼저 하고

진나라의 이익을 뒤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위태롭게 됩니다.

- (18) 寡人聞韓侈巧士也，習諸侯事，殆能自免也。(《戰國策·楚策》)

과인이 듣기에 한치(韓侈)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오. 제후의 일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번 싸움에 아마 의양을 지켜 낼 것이오.

- (19) 趙盾曰，彼宗競于楚，殆將斃矣，姑益其疾，乃去之。(《左傳·宣公二年》)

趙盾은 “저들 종족이 초(楚)에서 대대로 강성하니 아마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잠시 저 잘못을 더 하게 두자.”라고 하고서는 정(鄭)을 떠났다.

- (20) 卑身賤體，夙興夜寐，進賢不解，數稱於往古之德行事以厲主意，庶幾有益，以安國家社稷宗廟。(《說苑·臣術》)

자신의 몸을 낮추고 미천하게 처신하여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면서 일하고 어진 이 천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옛 성현이 행한 일을 자주 칭송하여 임금의 마음을 격려하면 아마 보탬이 되어 국가와 사직과 종묘를 안정시킬 것이다.

- (21) 君不以使人先觀秦王？意者秦王帝王之主也，君恐不得爲臣，奚暇從以難之？(《戰國策·齊策》)

군께서는 어찌 먼저 사람을 시켜 진왕(秦王)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진왕(秦王)이 정말 덕이 있는 제왕이라 군께서는 그러한 왕 밑에서 신하가 되지 못할까 염려할 것입니다. 어느 겨를에 함중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 (22) 雖疏食菜羹，未嘗不飽，蓋不敢不飽也。(《孟子·萬章下》)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배불리 먹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대개 감히 배불리 먹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능]류 양상부사는 (17)~(20)과 같이 대부분 주어와 술어 사이에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일부는 주어 앞에 출현하여 ‘Adv+NP+VP’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특히 ‘其’, ‘將’, ‘且’의 경우 주어가 의문대사 ‘誰’, ‘孰’나 부정대사 ‘或’인 경우에 한하여 문두에 출현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意’, ‘意者’는 (21)와 같이 주어가 의미상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와 무관하게 문두에도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或者’, ‘其諸’, ‘蓋’ 등은 종종 문두에 출현하는 용례가 있었으나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 (23) 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論語·太伯》)

태백(泰伯)은 아마도 지극한 덕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又將能忍吾子乎?(《說苑·貴德》)
또한 장차 내 아들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25) 七里之郭, 且可得也.(《墨子·非攻》)
7리 넓이의 외성이 있는 도시를 점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6) 然后國之良士, 亦將可得而衆也.(《墨子·尚賢》)
그런 후에야 나라의 어질고 좋은 선비를 얻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27) 無益于君, 而替前之令德, 臣故曰庶可已矣.(《國語·魯語上》)
이는 임금께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대의 아름다운 덕이 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그만둘 만 할 것이라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인식류 양상부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조동사들과 공기할 수 있다. ‘其₁’는 ‘欲’, ‘能’, ‘可’, ‘可以’, ‘得’, ‘足以’ 등과 공기할 수 있고, ‘將₁’은 ‘欲’, ‘敢’, ‘能’, ‘可’, ‘得’, ‘足以’ 등과 공기할 수 있으며, ‘且₁’는 ‘可’, ‘得’과 공기할 수 있다. ‘殆’와 ‘庶₁’은 모두 ‘能’, ‘可’와 공기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其 ₁	欲, 能, 得, 足以, 可, 可以
將 ₁	欲, 敢, 能, 可, 得, 足以
且 ₁	得, 可
殆	能, 可
庶 ₁	能, 可
庶幾 ₁ , 意 ₁ , 意者 ₁ , 或者 ₁ , 其諸 ₁ , 蓋 ₁	없음

<표5> [가능]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인식류 양상부사는 [능력], [조건], [의지], [용기]와 같은 동력양상과 [허가], [가치]와 같은 도의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庶幾’, ‘意’, ‘意者’, ‘或者’, ‘其諸’, ‘蓋’가 조동사가 공기하는 용례는 문헌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한편 [가능]류 양상부사는 양상부사 내부에서도 ‘殆將’, ‘其將’, ‘殆其’, ‘其必’ 등과 같은 同類 연용이나 ‘其果’, ‘其信’과 같은 異類 연용 현상도 종종 발견된다.

(28) 國不忌君, 君不顧親, 能無卑乎, 殆其失國. (《左傳·昭公十一年》)

나라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은 母親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衰微
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마 나라를 잃을 것이다.

(29) 延州來季子, 其果立乎. (《左傳·襄公三十一年》)

연주래계자가 과연 왕이 되겠습니까?.

양상표현들의 공기와 연용에 관하여, 彭利貞(2007:381, 436)은 異類 양상
동사(조동사)의 連用 현상을 ‘인식[E]>도의[D]>동력[D]’ 순서를 준수한다
는 이른바 ‘EDD규칙’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상고중국어의 조동사에는 인식
류와 도의류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사 내부에서 현대중국어에
서와 같은 이른바 ‘EDD규칙’의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고의
고찰을 통해 상고중국어의 조동사와 양상부사를 함께 고려한다면 상고중국어
의 인식류 양상부사들도 ‘EDD규칙’에 따라 도의류나 동력류 조동사 앞에서 연
용되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단류는 동력
류보다 앞에 출현하지만 인식류와는 어순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2.2 필연류

[필연]류는 현대중국어의 ‘必然’, ‘一定’, ‘要’와 같이 인식양상 가운데 화자의
명제에 대한 확신도가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상고중국어의 양상부사 가운데
[필연]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必’, ‘固’, ‘斷’, ‘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必’의 사
용빈도가 가장 높고, ‘固’, ‘斷’, ‘決’의 사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⁴⁾

양상부사 ‘必’은 대부분 (30)과 같이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31)과 같이 일부 ‘或과 같은 부정대사가 출
현한 용례에서 예외적으로 문두에 출현하여 ‘Adv+NP+VP’ 구조를 이룬다.
(32)과 같이 가정관계 복문에서 결과를 이끄는 절에 쓰이기도 한다. 양상부사

4) 谷峰(2010:79)에 의하면 상고중국어에서 [필연]을 나타내는 ‘斷’, ‘決’, ‘要’가 사용된 용례
는 각각 1회에 그친다. 이들은 모두 《史記》 이후 사용빈도가 매우 높아진다. 본고는 대
체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이 가운데 ‘要’의 관련 용례들은 조동사로 간주하며 양상
부사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固’, ‘斷’, ‘決’은 모두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 사이에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문두에 출현하여 ‘Adv+NP+VP’ 구조를 구성하는 용례는 문헌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 (30) 有德者必有言, 有言者不必有德.(《論語·憲問》)
 덕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본받을 만한 말이 있지만, 본받을 만한 말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 (31) 百家異說, 則必或是或非, 或治或亂.(《荀子·解蔽》)
 여러 사상가들은 그 학설을 다르게 하는데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하고, 혹은 다스려지기도 하고 혹은 어지럽기도 하다
- (32) 有言州, 必死.(《左傳·召公三年》)
 주(州)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 (33) 蔡衛不枝, 固將先奔.(《左傳·桓公五年》)
 채(蔡)와 위(衛)도 버티지 못하고 분명 먼저 달아날 것이다.

‘必₁’은 ‘足’, ‘欲’, ‘可’, ‘可以’, ‘得’, ‘能’, ‘敢’, ‘肯’ 등의 조동사와 모두 공기할 수 있다. ‘必₁’과 공기하는 조동사의 의미는 [능력], [조건], [의지], [허가] 등 동력양상과 도의양상이 모두 포함된다.

- (34) 介入石焉, 寧用終日, 斷可識矣.(《周易·系辭下》)
 절개가 돌과 같은데 어찌 하루를 기다리는가.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이다.
- (35) 王大怒, 欲廢太子, 立其弟孝. 王后知王決廢太子, 又欲并廢孝.(《史記·淮南衡山列傳》)
 왕은 크게 노하여 태자를 폐하고 그 동생 효(孝)를 세우려고 하였다. 왕후는 왕이 태자를 기필코 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효(孝)도 함께 폐하게 하려고 했다.

‘必₁’ 역시 ‘EDD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必₁’이 이상의 조동사들과 공기할 때 항상 선행한다. ‘固₂’, ‘斷₁’, ‘決₁’이 다른 조동사와 공기하는 용례는 문헌자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34)에서와 같이 《周易》에서 ‘斷₁’이 ‘可’와 함께 쓰인 용례가 1개 있다. [필연]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연용 현상은 아

래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必 ₁	足, 欲, 可, 可以, 得, 能, 敢, 肯
固 ₂	可
斷 ₁ , 決 ₁	없음

<표6> [필연]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3.3 도의양상

도의양상은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를 진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낸다. 화자가 동작주(또는 참여자)에게 모종의 행위를 실행해야 하는 도의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명제가 나타내는 사실이 진실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도의양상은 도의적 책임을 부여하는 정도 즉,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필요]와 [허가]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상고중국어에서 [허가]는 주로 ‘可’, ‘得’, ‘宜’, ‘當’ 등의 조동사에 의해 실현되며 부사로 실현되는 용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⁵⁾

[필요]는 현대중국어의 ‘一定’, ‘必須’, ‘務必’ 등과 같이 도의류 가운데 필요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미유형이다. 상고중국어에서 [필요]를 나타내는 양상부사로는 ‘必’이 있다. [필요]류 양상부사 ‘必’은 대부분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36)~(37)과 같이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필요]의 ‘必’이 출현하는 문장의 주어는 대부분 경우 1인칭 또는 2인칭인 사람을 가

5) 상고중국어에서 도의양상은 주로 ‘可’, ‘得’, ‘宜’, ‘當’, ‘欲’ 등의 조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다만 이들 조동사가 나타내는 양상의미는 정도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전통적인 3단계 분류법을 취한다면 ‘可’, ‘得’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허가], ‘宜’, ‘當’은 그보다 조금 강한 [의무]로 ‘欲’은 가장 높은 [필요]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의 의미체계는 [의무]와 [필요]를 하나로 통합하여 [필요]로 처리하였다.

리킨다.

- (36) 入以告王，且曰：“必殺之，不惑而顛大，視蹠而足高，心在他矣。”(《左傳·襄公三十年》)
 들어가 왕에게 고하고는 또 말하였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상중에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원하기는 크게 원하며 눈동자가 침착하지 아니하고 걸음걸이가 경충거리니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 (37) 夫言者所以抒其胸而發其情者也，能行之士必能言之。(《左傳·襄公三十年》)
 무릇 말이란 그 가슴속의 뜻을 드러내고 그 정(情)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능히 행할 수 있는 선비는 반드시 능히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식양상 [필연]의 ‘必’이 ‘敢’, ‘足’, ‘欲’, ‘可’, ‘可以’, ‘得’, ‘能’ 등의 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필요]를 나타내는 ‘必’은 다른 조동사와 함께 공기하지 않는다. 다만 ‘其必’, ‘必且’, ‘且必’, ‘必將’, ‘將必’과 같은 양상부사 내부의 동류 연용 현상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必 ₂	없음

<표7> [필요]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3.4 동력양상

동력양상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는 의미유형이다. 동력양상의 대표적인 하위 의미유형으로는 [능력], [의지], [용기] 등이 있다. 동력양상은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주어나 동작주(혹은 참여자) 내부에 충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유형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van der Auwera et al.(1998)은 양상범주의 의미체계를 구축하면서 ‘참여자외재’ 혹은 ‘참여자내재’ 여부를 매우 중요한 분

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동력양상에서 [능력]은 어떠한 사건이 참이 되기 위한 잠재력을 말한다. 상고중국어는 이러한 의미를 ‘能’, ‘可’, ‘得’ 등의 조동사로 표현한다. [의지]는 사건을 참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어나 동작주의 의지를 말한다. 현대중국어는 ‘想’, ‘愿意’, ‘要’ 등이 나타내는 의미가 이에 해당된다. 상고중국어에서는 ‘寧₁’, ‘必₃’, ‘斷₂’, ‘決₂’, ‘其₂’, ‘將₂’, ‘且₂’ 등에 의해 실현된다.

[의지]류 양상부사는 대부분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29)~(33)과 같이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이들 부사는 다른 조동사와 함께 공기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 (31) 報讎，吾寧事齊楚。(《國語·晉語三》)
그들에게 복수하느니 나는 차라리 제(齊)와 초(楚)를 섬길 것이다.
- (32) 舊令尹之政，必以告新令尹。(《論語·公治長》)
(자문은) 그만 둘 때 새로운 영윤(직책)에게 전임(前任) 영윤의 정사를 상세히 알렸습니다.
- (33) 爲我悔也，寧亡三城而悔，無危乃悔。寡人斷講矣。(《韓非子·內儲說上》)
내가 후회를 하게 된다면 차라리 세 개 성을 잃고서 후회할지언정 나라가 위태로워져서 후회하지는 않겠다. 과인은 기필코 강화를 할 것이다.
- (34) 爲其少故也，吾將授之矣。使營菟裘，吾將老焉。(《左傳·隱公十一年》)
내가 아직 왕위에 있는 것은 환공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다. 내 장차 그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토구 땅에다 저택을 짓고 나는 장차 그 집에서 늙을 것이다.
- (35) 使君所言公事，之曹與長史掾議，吾且奏之。(《史記·袁盎晁錯列傳》)
만약 그대가 공적인 일을 말한다면 관청에 가서 장사(長史)나 아전과 의논하시오. 그러면 내가 황제께 글을 올려 보고하겠소.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寧 ₁ , 必 ₃ , 斷 ₂ , 決 ₂ , 其 ₂ , 將 ₂ , 且 ₂	없음

<표8> [필요]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3.5 평가양상

본고에서 말하는 평가양상은 기지사실(known fact)인 명제의 가치나 특징에 대하여 화자가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명제의 진실성 즉 진위 여부나 진리치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니라, 명제의 내용 자체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식, 도의 등의 전형적인 양상의미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동력양상과 마찬가지로 ‘가능’, ‘개연’, ‘필요’와 같은 정도성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중국어의 경우 ‘果然’, ‘竟然’, ‘幸虧’, ‘偏偏’ 등의 부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각각 [기대(預期)]·[반기대(反預期)], [요행(僥幸)]·[애석(惋惜)] 등의 하위범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기대]와 [반기대]는 기지사실에 대한 화자의 [±예측(預料)]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요행]과 [애석]은 기지사실에 대한 화자의 [+바람(心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상고중국어 부사의 경우 [기대], [애석]으로 쓰인 용례가 문헌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3.5.1 반기대류

[반기대(反預期)]는 현대중국어의 ‘竟然’, ‘居然’과 같이 명제에 반영된 상황이 화자 자신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양상유형이다. 상고중국어의 양상부사에서 [반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曾’, ‘櫛’, ‘寧₂’, ‘一’, ‘乃₂’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36)~(37)와 같이 ‘曾’, ‘櫛’, ‘寧’은 주어가 무정대사(無定代詞) ‘莫’이나 ‘或’이 출현할 때 종종 주어 앞에 출현하여 ‘Adv+NP+VP’ 구조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용례는 주로 《시경》에서 보인다.

(36) 喪亂蔑資。曾莫惠我師。(《詩·大雅·板》)

상란(喪亂)으로 몰자가 없는데도 아무도 우리 백성을 돌보는 이가 없구나.

- (37) 民言無嘉，慳莫懲嗟。(《詩·小雅·節南山》)
백성들의 말은 기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이를 징벌하는 이가 없다.
- (38) 胡能有定，寧不我顧。(《詩·大雅·湯》)
어찌 그 마음 그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 (39) 宣王太息動於顏色，曰：靜郭君之於寡人，一至此乎!(《呂氏春秋·知士》)
선왕(宣王)은 크게 탄식하며 안색을 바꾸고 말하였다. 정곽군(靜郭君)이 나를 대하는 것이 뜻밖에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니!
- (40) 今子長八尺，乃爲人僕御，然子之意自以爲足，妾是以求去也。(《史記·管晏列傳》)
당신은 키가 팔 척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수레를 끄는 하인 노릇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이니 제가 떠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慳’, ‘寧₂’, ‘一’과 조동사가 함께 출현하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曾’은 ‘肯’, ‘能’, ‘足以’와 공기할 수 있고, ‘乃₂’는 ‘肯’, ‘欲’, ‘可’, ‘可以’, ‘能’과 공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肯’과 ‘欲’은 [의지]를 나타내고, ‘可’, ‘可以’, ‘能’은 [능력], [조건]을 나타낸다. 이들은 모두 동력양상에 해당된다. [반기대]류 양상부사가 인식양상이나 도의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와 공기하는 용례는 문헌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 (41) 且君老矣，旦暮之人，曾不能待而欲弑之!(《史記·晉世家》)
군왕께서는 이미 연로하셔서 목숨이 아침저녁에 달린 사람인데도 (놀랍게도)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이려 들다니!
- (42) 夫以楚之疆與王之賢，天下莫能當也。今乃欲西面而事秦，則諸侯莫不西面而朝於章臺之下矣。(《史記·蘇秦列傳》)
초(楚)의 강함과 왕의 현명함으로 일어난다면 천하에서 당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왕께서 서쪽을 향해 진(秦)을 섬기고자 하신다면 제후들 가운데 서쪽을 향하여 진(秦)의 장대(章臺) 아래에서 조회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曾	肯, 能, 足以
乃 ₂	肯, 欲, 可, 可以, 能
憚, 寧 ₂ , 一	없음

<표9> [반기대]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3.5.2 요행류

[요행(僥倖)]류는 화자가 어떤 유리한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본래 걱정하거나 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안심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에서 [요행]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幸’, ‘賴’ 등이 있다. 상고중국어 양상부사 ‘幸’, ‘賴’는 모두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출현하여 ‘NP+Adv+VP’ 구조를 구성한다.

- (43) 先生幸告之以便計, 請奉教.(《史記·滑稽列傳》)
 선생께서 다행히 편리한 계책을 알려 주셨습니다. 청컨대 선생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 (44) 文帝怒曰: “此人親驚吾馬, 吾馬賴柔和, 令他馬, 固不敗傷我乎?”(《史記·張釋之馮唐列傳》)
 문제(文帝)가 노하며 말씀하였다. “이 사람이 몸소 나의 말을 놀라게 하였다. 다행히 나의 말이 온화하고 유순하였기에 망정이지 가령 다른 말 같았다면 진실로 나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지 않았겠는가?”

양상부사 ‘幸’은 조동사 ‘可’, ‘得’과 함께 출현할 수 있다. 이때의 ‘可’, ‘得’은 모두 [능력], [조건] 등 동력양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 (45) 臣竊不自知, 自以爲奉令承教, 可幸無罪, 故受令而不辭.(《史記·樂毅列傳》)
 신은 속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명에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다행히 죄는 면할 수 있다고 여겨 사양하지 않고 명을 받았습니다.

구분	공기할 수 있는 조동사
幸	可(幸), (幸)得
賴	없음

<표10> [요행]류 양상부사와 조동사와의 공기 상황

5. 결론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의 의미체계를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체계에 따라 상고중국어 시기 양상부사의 용례를 분석하여 의미상, 통사상의 특징을 귀납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고중국어 양상부사가 나타내는 의미의 유형은 크게 인식, 도의, 동력, 판단, 평가 등 다섯 개의 대분류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상고중국어 양상부사는 기본적으로 '(NP)+Adv+VP' 구조에 출현하며 일부 특정 양상부사들이 'Adv+(NP)+VP'의 구조에 출현할 수 있다.

셋째, 판단류 양상의미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어나 주체가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확인]과 [강조]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이 중 [확인]류의 '信', '誠', '果', '固', '實', '眞'만이 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는데 주로 '能', '可', '足', '欲' 등 동력류 조동사와 공기한다. 판단류 양상부사는 동력류 조동사나 양상부사와 연용될 수 있다. 이때 판단류 양상부사는 동력류보다 앞에 출현한다. 하지만 인식류 양상표현과 공기할 때에는 양자 사이에 어순상의 우선순위를 볼 수 없다.

넷째, 인식류 양상의미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가능세계의 명제를 대상으로 화자가 그 진실성에 대하여 내리는 견해나 태도를 가리킨다.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갖는 확신의 정도에 따라 [가능]과 [필연]으로 세분된다. 이 중 출현 빈도가 비교적 낮은 '庶幾', '意', '意者', '或者', '其諸'와 사용 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는 ‘蓋’를 제외하면 모두 조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 주로 ‘能’, ‘可’, ‘足’, ‘欲’ 등 동력류 조동사의 앞에 쓰여 彭利貞(2007:381, 436)이 제시한 ‘EDD’ 연용 규칙을 따른다.

넷째, 도의류 양상의미는 화자가 동작주에게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를 사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류는 화자가 갖는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의무]와 [필요]로 나눌 수 있는데, 상고중국어에서는 필요성의 정도가 높은 [필요]를 나타내는 양상부사 ‘必₂’만 보인다. [필요]의 ‘必₂’은 [필연]의 ‘必₁’과 다르게 조동사와 공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동력류 양상의미는 동작주를 지향하는 의미유형으로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에는 동작주의 의지나 희망을 나타내는 [의지] 유형만 존재한다. ‘寧₁’, ‘必₃’, ‘斷₂’, ‘決₂’, ‘其₂’, ‘將₂’, ‘且₂’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 조동사와 함께 공기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여섯째, 평가류는 명제의 내용 자체에 대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가리킨다. 상고중국어 양상부사에는 [반기대(反預期)], [요행(僥倖)]의 두 유형만 발견된다. [반기대]의 ‘曾’, ‘乃₂’는 ‘肯’, ‘能’ 등, [요행]의 ‘幸’은 ‘可’, ‘得’ 등의 동력류 조동사들과 공기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상고중국어 양상부사가 나타내는 의미체계와 이들이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상, 통사상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개별 양상부사에 내재하는 특수성에서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 參考文獻 >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박성하(2015), <양태조동사 ‘能’의 하위분류 및 주어와의 공기특성 분석>, 《중어중문학》 61.
 이기갑(2008), <양상의 유형론>, 《언어유형론(시제·상, 양상, 조동사, 수동태[송경

안·이기갑 외))》, 서울: 월인.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유선영(2004), <《尙書》의 副詞 研究>, 漢陽大學校 中語中文科 博士論文.

_____(2004), <《尙書》의 양태부사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28.

윤순일(2015), <고대중국어 '當'의 문법화 小考 - 미래시표지 용법을 중심으로 >, 《중
국문화연구》 31.

_____(2017), <상고한어 양상부사의 범위>, 《중국어학논총》 58.

高育花(2007), 《中古漢語副詞研究》, 合肥: 黃山書社.

谷 峰(2010), <先秦漢語情態副詞研究>, 南開大學博士論文.

李 明(2001), <漢語助動詞的歷史演變研究>, 北京大學博士論文.

劉 利(2000), 《先秦漢語助動詞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馬慶株(1988), <能願動詞的連用>, 《中國語文》 1期.

彭利貞(2007), 《現代漢語情態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史金生(2003), <語氣副詞的範圍、類別和共現順序>, 《中國語文》 1期.

魏培泉(2015), <古漢語時體標記的語序類型與演變>, 《語言暨語言學》 16(2).

謝佳玲(2002), <漢語的情態動詞>, 台灣清華大學語言學研究所博士學位論文.

_____(2006), <漢語情態詞的語意界定>, 《中國語文研究》 21, 45-6.3.

楊伯峻(1972), 《文言文法》, 香港: 中華書局.

楊伯峻·何樂士(1992), 《古漢語語法及其發展》, 北京: 語文出版社.

尹淳一(2014), <《祖堂集》情態動詞及其語法化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張誼生(2000), 《現代漢語副詞研究》, 上海: 學林出版社.

朱冠明(2008), 《《摩訶僧祇律》情態動詞研究》,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Bybee, J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i, Renzhi. 2004. *Modality in English and Chinese: a Typological Perspective*, PhD, Antwerp.

Lyons, J. 1977. *Semantic(V.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1st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mer, F. R. 2001.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 Dasher.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La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r Auwera, J. and V. Plungian. 1998.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 79-124.

< Abstract >

A Study on Modal Adverbs in Ancient Chinese

Yoon, Soonil

Through the review of prior research, this paper completed the semantics system of the adverb of ancient Chinese style and analyzed the usage of modal adverbs in ancient Chinese language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organized the meaning and syntactic features of the sentences in which they were writt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emantic type of modal adverbs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epistemic, deontic, dynamic, judgmental and evaluative. They appear in the structure of '(NP)+Adv+VP' and a few examples appear in the structure of 'Adv+(NP)+VP'. 'Judgmental' refers to the attitude or perspective taken by the speaker on the authenticity of the proposition, which is considered a given fact. It is subdivided into 'confirmation' and 'strength' based on the perspective of judgment. 'Epistemic' refers to the speaker's view or attitude on the veracity of a proposition that is not known whether it is true or not. It is subdivided into 'possibility' and 'necessity' depending on the degree of confidence. 'Deontic' means refers to the point of view or attitude of the speaker to give the moral responsibility to agent in order to make the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proposition a fact. The modal adverbs of ancient Chinese language may only indicate 'necessity' with a high degree of necessity. There are only 'intention' types of 'dynamic' that can be expressed by the modal

adverbs of the Ancient Chinese. ‘Evaluative’ refers to the speaker’s view or attitude on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itself. Only two types of ‘counter-expectation’ and ‘fortunateness’ are found in Chinese adverbs.

Key words: Modal Adverbs, semantic types, Co-occurrence Restriction, Auxiliary Verbs, Ancient Chines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30	2020. 05. 11 - 05. 30	2020. 05. 15	2020. 06. 01	2020. 06. 30